

IV. 전무출신 윤리에 관한 연구

송 흥 인

(원광보건대 법당, 수위단회전문위원)

목 차

1. 시작하는 말	55
2. 전무출신 경제, 상하, 동지 윤리에 대한 연구 기준	55
3. 경제, 상하, 동지 윤리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	56
4. 맺는 말	66

1. 시작하는 말

하나의 서원으로 출발하여 같은 교육을 받고 원불교라고 하는 공동체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살고 있다. 합창을 할 때 불 협화음이 아닌 화음을 맞춰야 훌륭한 합창을 할 수 있듯이 나 이외에 다른 교무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또한 이해하려고 이해 받으려 하고 배려하며 화음을 맞출 때 원불교의 공동체가 살아나리라 생각해 보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상호간에 윤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교단의 현 시점에서 볼 때 많은 교역자들이 다양한 일터에서 전무출신의 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용금에 대한 불평등이나 선진, 후진 및 동지간에 신뢰하지 못한 면 등이 적지 않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무출신의 경제, 상하, 동지 등 윤리적인 측면을 설문을 통하여 고찰하였는 바, 향후 교단 정책 및 운영에 있어 미진하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 전무출신 경제, 상하, 동지 윤리에 대한 연구의 기준

중도 훈련원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교무 350명, 총부 및 대학, 중앙교구 교당 교무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나 214명의 교무들이 응답해 주었다.

경제 윤리 부분에 대한 연구에서는 경제 윤리관의 측면보다는 현재 전무출신의 급여 및 용금, 그리고 용금조차도 받지 않는 교무들의 최소한의 생활비에 대한 조사 등 전무출신들의 현실적인 경제부분을 의식 조사하였고 동지 윤리는 선진이 생각하는 후진, 후진이 생각하고 있는 선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동지 윤리는 언제 동지 교무가 소중하고, 서운한지와 교무와 부교무는 어떤 관계로 함께 교역에 임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응답자의 성별은 남녀 똑같이 107명이었고, 나이로는 30-40대가 77명으로 제일 많았고, 40-50세가 76명, 50-60세가 31명, 30세 미만이 19명, 61세 이상이 9명이었다.

교단에 근무한 년수에서는 1-10년이 90명, 11-20년이 75명, 21-30년이 35명, 31년 이상이 14명이었다. 또 근무처로는 교당이 90명, 총부 54명, 기관 43명, 교구 5명, 휴무 3명이었다.

3. 전무출신의 경제, 상하, 동지 윤리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

가. 전무출신의 경제윤리에 관한 의식조사

- 1) 현재 교무님께서는 전무출신 급여 및 후생현금 시행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총 214명이 응답하여
 - 전혀 모르고 있다 14명 (6.7%), • 거의 모르고 있는 편이다 39명(18.7%)
 - 별로 모르고 있는 편이다 32명(15.3%) • 약간 알고 있다 49명 (23.4%)
 -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 56명(26/85),
 - 잘 알고 있다 19명 (9.1%)로 조사되었는 바,** 전무출신의 급여 및 후생현금 시행 규칙에 대하여 상당수의 교무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 2) 교무님의 현재 급여 상태는 어떠하십니까라는 질문에
 - 급료를 받고 있다 29명 (13.1%),
 - 용금을 받고 있다 165명 (77.5%),
 - 급료와 용금도 받지 않는다 20명 (9.4%)로 조사 되었다
- 3) 급료를 받고 있는 교무 29명에게 현재 급료의 얼마만큼을 현금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 급료의 30-40% 14명 (48.3%)
- 급료의 10-20% 11명 (37.9%)
- 급료의 70-80% 2명 (6.9%)
- 현금하지 않는다 2명 (6.9%)로 조사되었는 바,

현재 급료를 받고 있는 교무들이 현금의 비율이 일정치 않게 나타나므로 교단에서는 급료를 받고 있는 교무들에 대해 교단 현금을 일률적으로 통일하여 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된다.

4) 급료를 받고 있는 교무로서 용금을 받거나 용금도 받지 않는 교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29명 응답)

- 미안하게 생각한다 16명 (61.5%)
- 정당한 일의 대가로 생각한다 6명 (23.1%)
- 빚진다는 생각이다 4명 (15.4%)
- 능력차이라 생각한다 3명(9.1%)로 나타났다.

**용금을 받고 있는 교무로서 급료를 받는 교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56명 응답)

- 급료와 용금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별 생각이 없다 80명 (51.3%)
- 불공평하다 44명 (28.2%)
- 전무출신 정신에 위배된다 12명 (7.7%)
- 부러운 느낌이다 3명 (1.9%)
- 무응답 17명 (10.2%)

** 용금도 받지 않는 교무로서 급료를 받는 교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20명 응답)

- 급료와 용금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별 생각이 없다 14명 (70%)
- 불공평하다 3명 (15%)
- 부러운 느낌이다 1명 (5%)
- 무응답 2명 (10%)

** 급료를 받고 있는 전무출신과 용금을 받는 전무출신에 대해 교단에서는 사업성적 평가를 달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급료 받는 교무	용금 받는 교무	용금도 받지 않는 교무
• 매우 잘못됐다	5명 (18.5%)	24명 (14.7%)	1명 (5.6%)
• 약간 잘못됐다	6명 (22.2%)	6.7%	5명 (27.8%)
• 반반이다	5명 (18.5%)	10.4%	6명 (33.3%)
• 어느정도 타당하다	10명 (37%)	71명 (43.6%)	6명 (33.3%)
• 정말 타당하다	1명 (3.7%)	40명 (24.5%)	

급료를 받고 있는 교무들은 그렇지 않는 교무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면이 많았고, 용금 및 용금도 받지 않는 교무들은 급료를 받는 교무들에 대해 장단점이 있으므로 별생각이 없다는 의식이 많은 면을 볼 때 상호 불평등에 의한 불만은 많지 않게 조사되었으나 급료를 받고 있는 전무출신들의 현금에 대한 부분과 사업성적에 관한 부분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용금을 받고 있는 교무 165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 현재 용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

- 9만원 이하 6명 (3.6%)
- 10- 19만원 24명 (14.5%)
- 20 - 29만원 76명 (46.1%)
- 30-39만원 13명 (7.9%)
- 40-49만원 32명 (19.4%)

• 50만원 이상 14명 (8.5%)으로 용금의 수준도 다양하게 파악되었으므로 용금의 기준도 일정정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현재 받고 있는 용금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가

- 너무 부족하다 28명 (17%)
- 부족한 편이다 75명 (45.5%)
- 적당하다 56명 (33.9%)
- 약간 넉넉하다 5명 (3%)
- 매우 넉넉하다 1명 (0.6%)로 파악되어 부족하다는 교무가 62.5%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 그렇다면 용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136명 응답)

용금을 받는 교무 (136명 응답)

용금도 받지 않는 교무 (18명 응답)

- 10-19만원 3명 (2.2%) 11만원 - 30만원 6명 42.9%
- 20-29만원 20명 (14.7%) 31만원 - 50만원 4명 28.6%
- 30-39만원 22명 (16.2%) 51만원 - 70만원 4명 28.6%
- 40-49만원 19명 (14%)
- 50-59만원 20명 (14.7%)
- 60-79만원 12명 (8.8%)
- 80-99만원 21명 (15.4%)
- 100만원 이상 19명 (14%)으로 적당한 용금의 액수는 20만원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용금도 받진 않는 교무 또한 용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용금이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필요한 지출은 어떻게 충당하는가**

- | | |
|--------------------|-----------------------|
| 용금을 받는 교무(159명 응답) | 용금도 받지 않는 교무 (19명 응답) |
|--------------------|-----------------------|
- 공금으로 충당한다 12명 (7.5%)
 - 개별 활동 수익으로 활용한다 12명 (7.5%)
 - 사가의 도움으로 충당한다 80명 (50.3%)
 - 지출을 포기한다 46명 (28.9%)
 - 기타 무응답 4명 (2.5%)

용금이 부족한 경우에 사가의 도움이 50.3%, 지출을 포기한다 28.9%로 나타난바, 현재 용금 및 용금을 받지 않는 교무들의 경우 개인적 지출에 대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활동비 조달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용금도 받지 않는 교무의 경우 공금으로 활용하는 교무가 과반수에 육박하므로 합법적인 용금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용금을 받지 않는 교무에게 질문

**** 용금을 받지 않는 이유는 (21명 응답)**

- 근무지의 경제가 어려워서 11명 (52.4%)
- 전무출신 정신으로 살고 싶어서 4명 (19%)
- 상사 교무가 주지 않아서 1명 (4.8%)
- 용금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구애가 없으므로 1명 (4.8%)
- 기타 무응답 4명 (19%)

**** 최소한의 개인 생활비는 얼마정도인가**

- 10만원 이하 13명 (65%)
- 11 - 30만원 5명 (25.1%)
- 31 - 50만원 1명 (5%)
- 51 - 70만원 1명 (5%)

최소한의 개인 생활비는 10만원이하가 많았는데, 근무지의 경제가 어려워서 용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 교무님께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교당이나 기관에서 교무님 개인적으로 얼마정도의 공금(판공비, 활동비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까(한달평균)

	급료받는 교무(21명)	용금받는 교무(146명)	용금도 받지않는 교무(18명)
• 없다	18명 (85.7%)	110명 (75.3%)	9명 (56.3%)
• 50만원이하	3명 (14.3%)	32명 (21.9%)	6명 (37.5%)
• 51-100만원이하		2명 (1.4%)	
• 100만원이상		1명 (0.7%)	1명 (6.3%)

나. 전무출신 상하 윤리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입니다

8) 교단의 선진, 선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13명 응답)

•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1명 (0.5)
• 별로 존경하지 않는다	14명 (6.6)
• 반반이다	25명 (11.7)
• 존경하는 편이다	134명 (62.9)
• 매우 존경한다	39명 (18.3)

** 교단의 후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5명 응답)

• 매우 걱정된다	11명 (5.4)
• 약간 걱정이다	89명 (43.4)
• 보통이다	31명 (15.1)
• 들판, 자랑스럽다	52명 (25.4)
• 매우 들판하다	21명 (10.2)

9) 교무님께서는 선진, 선배교무님들의 어떤 점이 존경스럽습니까

- 진리에 대한 해박한 이해 9명 (4.4)
- 사업적 능력 18명 (8.9)
- 고매한 인격 165명 (81.3)
- 전무출신의 희생봉사정신 7명 (3.4)
- 기타 2명 (1.0)

** 후진이 듬직하게 여겨질 때 어떤 때?

- 일처리를 잘 할 때 26명 (12.2)
- 계행이 청정할 때 33명 (17.6)
- 선진을 공경할 때 11명 (5.9)
- 교화력이 있을 때 59명 (31.4)
- 일과를 잘 준수할 때 45명 (23.9)
- 기타 17명 (9)

10) 선진님들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는 어떤 때?

- 취사력이 부족할 때 46명 (21.9)
- 사업을 잘하지 못할 때 2명 (1)
- 전무출신 정신이 부족할 때 80명 (38.1)
- 후배의 세정을 몰라줄 때 25명 (11.9)
- 교화력이 부족할 때 8명 (3.8)
-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할 때 41명 (19.5)
- 기타 8명 (3.8)

** 후진이 걱정될 때는 어느 때?

- 일처리를 못 할 때 26명 (13.3)
- 계행 청정하지 못 할 때 80명 (41)
- 선진을 공경하지 못 할 때 22명 (11.3)
- 일과를 준수치 못 할 때 47명 (24.1)
- 기타 22명 (11.3)

교무들은 대체적으로 선진님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편이고, 후진에 대해서는 듬직과 걱정이 반반이었다. 또한 선진님들의 고매한 인격으로 인해 존경심이 우러났다.

고, 전무출신의 정신이 부족할 때 가장 실망이 커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후진에 대해서는 교화력이 있을 때 가장 듬직하다하였고, 계행이 청정하지 못하고 일과를 준수치 못한 후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현재 교무님께서는 후배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200명 응답)

- 거의 존경받지 못한다 10명 (5)
- 별로 존경받지 못한다 35명 (17,5)
- 반반이다 99명 (49,5)
- 약간 존경받는다 56명 (28,5)
- 매우 존경받고 있다 0명

** 교무님께서는 현재 선배들에게 얼마나 인증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7명 응답)

- 거의 인증받지 못한다 4명 (1,9)
- 별로 인증받지 못한다 21명 (10,1)
- 반반이다 75명 (36,2)
- 약간 인증받고 있다 97명 (46,9)
- 매우 인증받고 있다 10명 (4,8)

교무들은 후배들에게 인정받는 비율보다 선진들에게 인증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무들이 많았다.

12) 교무님께서는 잘못할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십니까?(210명 응답)

- 스승 73명 (34,8)
- 선배 22명 (10,5)
- 동지 90명 (42,9)
- 기타, 부모친척 22명 (10,5)

** 스승과 상담하지 않는 이유 ? (159명 응답)

-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다 79명 (49.7)
- 존경심이 없다 12명 (7,5)
-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14명 (8,8)
- 상담할 인연이 없다 24명 (15,8)

현재 교무들은 잘못할 고민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스승과 동지들에게 고민을 상담하고 있으며 스승에게 상담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밀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존경하는 선진에 대한 불신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상담할 인연이 없다는 응답이 15.8%에 해당하고 있어 현재 교화단회의 단장, 중앙을 중심한 상담역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다. 전무출신 동지관계에 대한 의식조사 분석 내용

13) 동지교우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때는 어느 때입니까 ?(204명 응답)

-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8명 (3.8)
- 공부심과 신심을 일깨워 줄 때 106명 (50.5)
- 어려운 일에 힘이 되어 줄 때 63명 (30)
- 허심탄회하게 어울릴 수 있을 때 29명 (13.8)

** 동지교우가 가장 서운하게 느껴질 때는 어느 때입니까 (203명 응답)

- 세정을 몰라 줄 때 29명 (14.3)
- 믿어 주지 않을 때 37명 (18.2)
- 나를 경쟁자로 생각할 때 21명 (10.3)
- 마음 공부를 잘하지 못할 때 81명 (39.9)
- 나를 함부로 대할 때 27명 (13.3)
- 기타 8명 (3.9)

**동지교무가 나보다 큰 교당이나 주요 보직 발령이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04명 응답)

- 교단에 서운한 생각이 듈다 13명 (6.4)
- 동지교무에게 시기심, 미운 마음이 난다 7명 (3.3)
- 긍정적으로 이해한다 104명 (51)
- 동지교무가 일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원해 준다 80명 (39.2)

교무들의 동지관계는 상호 공부심과 신심을 일깨워 주는 교무가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고 있고 마음공부를 잘하지 못할 때 가장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교단 발령에

있어서 동지교우에 시기심보다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기원해 주는 동지애를 발견할 수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된다..

14) 교무님은 부교무와 교당 일을 상의하고 있습니까 ?(62명 응답)

- 공적인 일은 상의한다 31명 (50)
- 대체적으로 상의한다 23명 (37.1)
- 가끔씩 상의한다 4명 (6.5)
- 거의 상의하지 않는다 4명 (6.5)

** 상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26명 응답)

- 교당 책임자는 교무이기 때문에 1명 (3.8)
- 부교무가 관여할 바 아니므로 6명 (23.1)
- 부교무가 미덥지 않기 때문에 6명 (23.1)
- 부교무가 알면 일이 복잡해지므로 2명 (7.7)
- 대부분 상의할 성격이 아니므로 9명 (34.6)

** 부교무와 모든 일에 상의한다면 그 이유는 ? (54명 응답)

- 같은 교역자로서 주인이기 때문에 43명 (79.6)
- 부교무가 능력이 있으므로 10명 (18.5)
- 함께 할 때 일처리가 쉬우므로 1명 (1.9)

교무와 부교무는 같은 교역자로서 주인이기 때문에 공사를 대체적으로 상의하는 편이나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교당에서 교무가 부교무에게 고마운 마음이 날 때는 어느 때입니까
(51명 응답)

- 교당 일을 협력하여 잘 처리해 줄 때 31명 (60.8)
- 교무의 감정을 잘 헤아려 줄 때 3명 (5.9)
- 보좌를 잘 해 줄 때 10명 (19.6)
- 부교무가 언제나 든든하므로 6명 (11.8)
- 기타 1명 (2.0)

** 부교무에게 서운한 마음이 날 때는 어느 때 (51명 응답)

•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21명 (41,2)
• 교무를 무시할 때	5명 (9,8)
• 일과 준수를 못할 때	5명 (9,8)
•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할 때	11명 (21,6)
•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8명 (15,7)
• 기타	1명 (2,0)

** 부교무가 교무에게 고마운 마음이 날 때는 어느 때 (56명 응답)

• 세정을 알아줄 때	22명 (39,3)
• 능력을 인정해 줄 때	15명 (26,8)
• 가르침을 줄 때	8명 (14,3)
• 교당의 크고 작은 일을 상의할 때	11명 (19,6)

** 부교무가 교무에게 서운한 마음이 날 때는 어느 때 (57명 응답)

• 세정을 몰라줄 때	19명 (33,3)
• 무시당할 때	16명 (28,1)
• 어른으로서 취사력이 부족할 때	15명 (26,3)
•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7명 (12,3)

교당에서 교무가 부교에게 고마울 때와 서운할 때는 대체적으로 교당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고, 부교무가 교무에게 서운하거나 고마울 때는 세정을 알아줄 때, 무시할 때 등 업무와는 크게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고 배려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교당에서 교무와 부교무의 관계에 있어 교무는 부교무를, 부교무는 교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 같은 교역자로서 다른 업무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38명 (48,7)
•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다	11명 (14,1)
•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이다	10명 (12,8)
• 동고동락하는 동지관계이다	19명 (24,4)

교역자 상호간의 관계는 같은 교역자로서 동고동락하는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등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3. 맷는 말

1,500여명의 교역자중 214명의 교무들 응답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기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5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했는데 214명만 응답했다는 것도 응답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며 설문지 내용이 미비한 관계로 전무출신 윤리에 관한 본질적인 접근이 부족하다 할 수 있으나, 교무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전무출신의 급여 용금에 대하여는 급료를 받고 있는 교무, 용금을 받는 교무, 무용금의 교무들에 대한 불평등의 요소들을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의 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소외감이나 괴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하 윤리에 대하여는 선, 후진간에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교단적 풍토가 필요하며 교무들의 신심, 공부심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단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당에서 교무와 부교무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교역자로써 공적인 교당일을 공사를 통하여 상의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며, 서로 세정을 알아주는 동지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